

제3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제3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The 3rd KU-KIEP-SBS EU Centre
Research Paper Competition on EU Studies:
Award-Winning Papers

KU-KIEP-SBS EU센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고려대학교, SBS와의 컨소시엄으로 설립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을 받는 유럽 교육·연구 및 공공외교 기관으로서 2014년 5월 출범하였습니다. KU-KIEP-SBS EU센터에서는 유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EU 지역연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제3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생 EU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였고, 본 논문공모전의 수상작 두 편을 모아 수상논문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KU-KIEP-SBS EU센터는 논문공모전 실시를 통해 유럽통합을 비롯하여 EU의 경제, 정치 및 사회현상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 EU와 한국 간의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제시에 기여할 것입니다.

The KU-KIEP-SBS EU Centre, an education & research consortium sponsor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was established on May 2014 by three partner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Korea University, and Seoul Broadcasting System (SBS). The KU-KIEP-SBS EU Centre is dedicated to make contribution to enhancing interest in Europe and to expanding research base in EU area studies. Therefore, the KU-KIEP-SBS EU Centre hosted "The 3rd KU-KIEP-SBS EU Centre Research Paper Competition on EU Studies" and this book includes two best papers from the competitions. The KU-KIEP-SBS EU Centre will contribute to analyzing issues on European integration, the economic and political dynamics in EU and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EU through this research competition.

차 례

[대상]

분열에 대한 문제: 유럽의회 내 극우세력의 등장과 브렉시트에 대한 좌파의 대응 5
신수안 · 강수지

I. 들어가는 말	8
II. 자료와 연구방법	11
III. 차원의 변화	18
IV. 양극화 및 연대의 변화	34
V. 맺음말	38
참고문헌	41
부록	44



[우수상]

Developing a ROK-EU Oriented PPP Trilateral Cooperation Model

47

홍민혁 · 구희원 · 박정문

I. Development Cooperation	49
II. Institutional Analysis	52
III. PPP Triangular Cooperation	58
IV. Potential Obstacle: A Prisoner's Dilemma Analysis	62
V. Conclusion: Prospects and Assessment	65
References	66

대상

분열에 대한 견제: 유럽의회 내 극우세력의 등장과 브렉시트에 대한 좌파의 대응

신수안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수지

서울대학교 외교학 석사과정

■ 요 약 ■

제8대 유럽의회(EP: European Parliament)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15년 6월 15일, 마린 르 펜(Marine Le Pen)이 이끄는 프랑스 국민전선(Front National)의 주도로 ENF (Europe of Nations and Freedom)라는 새로운 극우 교섭단체(potitical group)가 결성되었다. 그로부터 일 년 뒤인 2016년 6월 23일에는 영국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 일명 브렉시트(BREXIT: Britain+EXIT)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배경에는 유럽회의주의를 외치는 극우 세력이 있었다. 민족적 위협감과 정치적 불신을 바탕으로 성장한 이들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족국가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극우 세력의 약진은 EU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과연 그들이 목표로 한 바와 같이 EU 내 분열이 나타났는가?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ENF 결성과 브렉시트가 EP의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제8대 EP의 “International Trade,”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Immigration” 관련 호명투표 자료를 ① ENF 결성 이전 ② ENF 결성 이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전 ③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로 나누어 W-NOMINATE (Weighted Nominal Three-Step Estimation)를 통해 각 MEP(Member of the EP)의 이상점(ideal point)을 유클리드 공간에 구현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투표를 결정하는 차원을 해석하기 위하여 각 투표에 대응되는 회의록을 활용한다. 라소(LASSO: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추정 방식을 활용해 W-NOMINATE 점수를 잘 예측하는 단어를 추려내어 각 차원(dimension)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EP 내의 세력 구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Esteban-Ray 계산식과 모듈러(modularity)을 이용해 양극화 및 연대 정도를 측정하여 비교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NF의 결성 이후 급진파 교섭단체와 온건파 교섭단체를 가르는 새로운 투표행태의 차원이 등장하였다. 급진적인 좌파와 급진적인 우파 교섭단체는 나머지 온건한 교섭단체들과 달리, EU가 주도하는 자유무역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파 교섭단체 간의 유사한 투표행태는 극우 세력이 원하는 연대를 이루었다기보다 자유무역 정책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난민 정책과 같은 규범적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둘째, ENF 결성 이전에 가장 주요한 차원으로 존재하던 사회주의 대 보수주의의 대결은 ENF 결성 이후 두 번째 차원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더불어, 이 두 번째 차원의 유효성은 브렉시트 이후로 증대되었다.

셋째, 예상했던 바와 달리 브렉시트 이후에는 투표 결정 차원의 중대한 변화가 부재하였다. 이는 브렉시트 논의 자체가 오래전부터 공론화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 단절을 일으킬 만한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ENF의 결성 이후 좌파 교섭단체들 간의 연대가 강화되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급진적인 좌파가 때로는 급진적인 우파와 유사한 표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러한 투표를 행사하게 된 목적이 상이하며 이상점 또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한 좌파 교섭단체들이 극우를 견제하며 더욱 강하게 연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브렉시트 이후 전체적인 양극화 정도는 줄어든 것으로 관측되었다. 브렉시트 표결 이후 좌파나 우파, 친유럽연합이나 반유럽연합 진영 내 연대가 강화되는 동시에 이들 진영 간의 양극화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곧 MEP 사이에서 과도한 의견 충돌을 피하며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극우와 유럽회의주의 세력의 약진은 좌파 세력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좌파 교섭단체들은 EU를 통한 유럽 통합에 찬성하거나, 때로는 기존의 통합 방식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유럽 국가들의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세력이기 때문이다. 물론 급진적인 좌파는 극우와 마찬가지로 EU가 추진하는 자유무역 정책 등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공통의 목적 아래 결탁한 것은 아니었다. 좌파는 노동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반면, 극우는 민족의 영광을 목적으로 ‘EU가 주도하는’ 시장개방에 반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좌파 세력은 극우 교섭단체의 결성이나 브렉시트가 암시하는 민족국가로의 회귀에 대해 경각심을 품고, 오히려 서로 더 연대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반작용을 보였다. 결국 극우와 유럽회의주의 세력이 실현시키고자 하는 분열은 오히려 EP 내부에서 그들에 대한 견제를 초래한 것이다.

주제어: 극우,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 ENF(Europe of Nations and Freedom),
브렉시트(BREXIT), EP(European parliament), 투표행태 분석, 텍스트 분석

I. 들어가는 말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게 지난 몇 년은 시험의 연속이었다. 거듭되는 테러 위협과 극우 정당들의 부상은 각국의 반이민정서와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였고, 이는 EU 중심의 통합에 반대하는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한 신호탄이라도 되듯이 8대 유럽의회 회기 중간이었던 지난 2015년 6월 15일 극우 성향의 의원들이 모여 국가와 자유의 유럽(ENF: Europe of Nations and Freedom)이라는 극우 교섭단체(potitical group)를 결성하였고, 그 뒤를 이어 영국 국민들은 2016년 6월 23일 유럽연합 탈퇴, 일명 브렉시트(BREXIT: Britain+EXIT)를 선택하였다.

물론, 유럽회의주의가 최근 새롭게 등장한 논란은 아니다. EU의 민주적 결함(democratic deficit), 유럽의회(EP: European Parliament)의 약한 대표성 등에 대한 의문과 비판은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기존에 자유와 직접 민주주의 유럽(EFDD: Europe of Freedom and Direct Democracy)과 같은 교섭단체가 유럽회의주의를 대표이념으로 내세우기도 하였고, 이미 오래 전 제2대와 제3대 EP 내에서 극우 성향의 교섭단체 유럽자유연합(Group of the European Right)이 결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극우 교섭단체는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EP에서 극우 정당들 간의 연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에 리스본 조약 등을 통해 EP의 EU 내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을 재고하려는 시도는 이어져왔다. 따라서 반유럽연합주의와 친유럽연합주의 사이에는 일종의 긴장상태가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ENF 결성과 브렉시트라는 두 사건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ENF 결성은 단순히 EU를 통한 유럽의 통합에 회의를 느끼는 것을 넘어서, 민족국가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극우정당의 이념이 EU의 정치지형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민족적 위협감(ethnic threat)과 정치적 불신(potitical distrust)에 기반하고 있다(Werts, Scheepers and Lubbers 2012). 그들은 민족의 영광과 유럽의 번영을 분리시키며, 재정과 이민 문제와 관련된 EU의 정책들이 개별 국가들의 이익 추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 한편, 이러한 극우정

당들의 민족주의에 입각한 독자노선으로 인해 그들 간의 연합이나 협력체제와 같은 국제적 연대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유정환 2008). 그러나 예상을 뒤집고 극우정당들은 분열을 위한 연대를 해내었다. 유럽 내에 한껏 긴장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한 극우정당들이 EU의 입법과정에 집단행동을 행사한다는 것은 유럽통합의 관점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추가된 것이다.

더불어 브렉시트는 그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만큼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사건이었다. 물론 국민투표 이후에도 그 효력과 탈퇴 진행과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EU 역사상 최초의 회원국 탈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다만, 영국 내에서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 탈퇴를 둘러싼 국민투표가 1975년도에 이미 이루어졌던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브렉시트가 어느 정도의 새로운 충격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필요성이 충분해 보인다.

ENF 결성과 브렉시트가 EP에 미친 영향을 논의할 때, 두 가지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바로, 현재 EU가 처한 긴장상태가 유럽회의주의와 극우 세력에 기반해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많은 경우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염밀하게는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즉 극우가 아니어도 유럽회의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EP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교섭단체 GUE-NGL(Confederal Group of the 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의 경우, 유럽의 통합에는 지지하나 EU식의 통합에는 반대한다. 이렇듯 유럽회의주의와 극우 성향은 별개의 것이지만, ENF와 브렉시트 등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있어서는 그 두 개념이 ‘국가’와 ‘민족’의 영광을 되찾으려 한다는 목적에서 결합되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 두 맥락을 고려하여 ENF 결성과 브렉시트가 EP에서 투표가 결정되는 차원과 교섭단체별 연대를 변화시켰다는 가설을 세워 검증해 보려 한다.

본 연구는 제8대 EP의 “International Trade,”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Immigration” 관련 호명투표와 회의록을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W-NOMINATE(Weighted Nominal Three-Step Estimation)를 통해 분석한 결과, ENF 결성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대 보수주의라는 투표 결정의 차원을 차등의 것으로 밀어내고, 급진파 대 온건파라는 차원을 새롭게 등장시켰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두고, 급진적 좌파와 급진적 우파가 공통의 목적 아래 연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까? 본 연구는 그러한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 이들 교섭단체는 의도치 않게 자유무역 관련 안전에 있어 같은 표결을 선택하였을 뿐, 이상점이나 목표하는 바에 있어서는 매우 상이한 성격을 지닌다. 이는 난민 문제와 같이 규범적 판단이 요구되는 안전에서 서로 다른 표결을 보인다는 점, 사회주의 대 보수주의라는 차원이 두 번째 차원으로서 아직 유효하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더불어 ENF 결성 이후에도 좌파의 연대가 강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족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EU를 와해시킨다는 ENF의 목적이 좌파 교섭단체들에게 공유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들을 자극시켜 연대하게 만드는 반작용을 낳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편, 전 세계가 주목했던 브렉시트는 EP를 크게 자극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NF 결성과는 달리 브렉시트 이후 투표 결정 차원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양극화 정도는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까닭은, 이미 영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EU 통합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브렉시트 자체도 오래전부터 공론화되어 왔던 이슈이기 때문이다. 결국 ENF 결성과 브렉시트는 EP가 새로운 불확실성의 상황을 맞이하여 무조건적인 통합이나 민족국가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통합의 길을 모색하도록 인도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은 연구 자료와 세 가지 다른 연구방법 ① 호명투표와 W-NOMINATE를 활용한 MEP(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의 이상점 분석 ② 회의록 자료와 라소 추정방식을 활용한 투표 차원의 검토 ③ Esteban-Ray 계산식과 모듈식을 이용한 양극화 및 연대 정도 측정을 소개한다. III장은 W-NOMINATE를 통해 세 시기에 걸친 MEP의 투표 차원의 변화를 도출하고, 라소 추정방식을 통해 그 의미를 도출한다. IV장은 Esteban-Ray 계산식과 모듈식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세 시기의 양극화 및 연대의 변화를 관측하여,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를 토대로 그 의미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V장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II. 자료와 연구방법

ENF의 결성과 브렉시트가 EU를 통한 유럽의 통합에 미친 영향을 어떠한 방법으로 포착할 수 있을까? EU 내에서 ENF의 등장과 브렉시트가 유럽회의주의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럽 대륙의 정치적 균열(cleavage)을 EU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EP에 주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EP는 각 EU 회원국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751명의 유럽의회의원(MEP: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들로 구성되며,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 더불어 입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5년 임기의 MEP는 자신이 소속된 각국의 정당과는 별개로 유럽의회 내에 교섭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데, 제8대 유럽의회의 경우 2014년 7월 1일 총 7개의 교섭단체로 개회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기 중간인 2015년 6월, 마린 르 펜(Marine Le Pen)이 이끄는 프랑스 국민전선(Front National)의 주도로 ENF가 결성되었고, 현재까지 총 8개의 교섭단체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각 교섭단체의 규모와 성격은 [표 1]과 같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각국을 대표하여 선출된 MEP가 개별 국가가 아닌 정치적 이념에 따라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하며, 실제로도 국익이 아닌 초국가적인 이념적 정체성에 따른 투표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Attina 1990; Brzinski 1995; Raunio 1997; Hix, Noury and Roland 2006).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① ENF 결성 이전(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14일) ② ENF 결성 이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전(2015년 6월 15일~2016년 6월 22일) ③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2016년 6월 23일~2017년 3월 22일), 세 시기에 걸쳐 MEP의 투표행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1 제8대 유럽의회 내 교섭단체

교섭단체명	이념	인원(명)
Europe of Nations and Freedom Group (ENF)	극우/민족주의 반유럽연합주의	39
Europe of Freedom and Direct Democracy Group (EFDD)	반유럽연합주의 우익/보수주의	42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Group (ECR)	반유럽연합주의 보수주의/경제자유주의	74
Group of the European People's Party (Christian Democrats) (EPP)	기독 민주주의 자유보수주의 친유럽연합주의	217
Group of the 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ALDE)	자유주의 중도주의	68
Group of the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in the European Parliament (S&D)	사회민주주의	189
Group of the Greens/European Free Alliance (Greens/EFA)	녹색정치/소수정치 지역주의	51
Confederal Group of the 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 (GUE-NGL)	사회주의/공산주의 (약한)반유럽연합주의	52
Non-Inscrits (NI)	-	18
총 인원 수	-	750

자료: EP와 각 교섭단체 공식사이트.

1. 호명투표와 W-NOMINATE를 활용한 MEP의 이상점 분석

EP에서는 거수투표(show of hands)와 전자투표(electronic vote), 호명투표(roll-call vote)의 세 가지 종류의 투표가 존재한다. 이들 중 호명투표만이 유일하게 개별 의원들이 “For”와 “Against,” “Abstain” 중 어느 쪽에 투표하였는지가 공개된다. 원칙적으로는 특정한 투표들만이 호명투표로 이루어지지만, 교섭단체나 최소 32명의 의원들의 요구 아래 어떠한 투표든지 호명투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이 호명투표 기록을 토대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예: Hix 2002; Carrubba, Gabel, Murrah and Clough 2004; Høyland 2010).

본 연구는 제8대 유럽의회가 개회한 이후 이루어진 모든 호명투표 기록(의원 이름,

투표 내역, 분야, 안건, 유형, 날짜 등)을 수집하였다.¹⁾ 다만 아직 제8대 유럽의회의 회기가 진행 중인 관계로, 2014년 7월 16일 첫 투표를 시작으로 2017년 3월 22일 투표 까지 연구 자료로 설정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 투표 자료를 분야(policy area)별로 분류하였고, 그중 ‘International Trade,’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Immigration’ 관련 투표를 추려 분석 자료로 삼았다.²⁾ 만약 모든 분야들을 합하여 분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이슈에 대한 MEP의 입장이 중첩되어 이상점과 그 변화를 해석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ENF 결성과 브렉시트의 영향이기 때문에, 유럽회의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투표의 분석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유럽회의주의와 극우 정당 세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주제들, 그리고 앞으로의 유럽통합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제들을 선정하였고, 그렇게 ① ENF 결성 이전 98건 ② ENF 결성 이후 브렉시트 이전 291건 ③ 브렉시트 이후 116건의 투표가 모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위의 투표 자료와, 해당 호명투표에 대응되는 회의록을 토대로 총 세 가지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W-NOMINATE를 이용한 MEP의 이상점(ideal point) 규명, 라소(LASSO: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추정 방식을 이용한 투표 결정 차원의 검토, Esteban-Ray 계산식과 모듈식(modularity)을 이용한 양극화(polarization) 및 연대(coalition) 정도 측정이 그것이다. 각각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것을 통해 검증하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의원들의 투표 기록을 통하여 그들의 투표 행태를 분석하는 공간모형(spatial model)으로 W-NOMINATE(Weighted Nominal Three-Step Estimation)를 이용하였다(Poole 2011). W-NOMINATE는 의원들 각각의 정책 선호가 정규분포 모양의 효용함수를 따른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들의 투표 기록을 토대로 각 의원들의 효용이 최대가 되는 이상점을 추론하여 유클리드 공간에 나타내는 방법이다.³⁾ 따라서

-
- 1) 유럽의회 공식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호명투표 파일의 형태가 크롤링(crawling)에 부적절한 관계로, 이를 원본 그대로 수집하여 열람 가능하도록 해놓은 Vote Watch Europe(<http://www.votewatch.eu/>)의 자료를 크롤링 하였다. 두 사이트의 호명투표 기록은 완벽하게 일치함을 밝히는 바이다.
 - 2) ‘International Trade’와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의 경우, 분류 기준은 EP 내 상설위원회 20개 중 해당 상설위원회의 투표로 하였다. ‘Immigration’의 경우, migration, asylum, refugee, visa 등을 키워드로 하여 관련된 투표들을 선정하였다.
 - 3) 구체적인 계산과정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W-NOMINATE를 통해 드러난 유클리드 공간 안의 각 점들은 각 의원들을 대표하며, 이 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해당 의원들이 유사한 투표 행태내지는 정책 선호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선호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여러 개의 차원(dimension)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P가 세 시기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어떠한 이상 점 분포의 양상을 보이며, 그 차원의 수와 내용이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ENF 결성과 브렉시트는 MEP들이 투표를 결정하는 차원의 변화를 가져왔다.

MEP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정체성과 정책 선호도에 따라 투표를 한다. 이때 ENF 결성과 브렉시트는 MEP의 투표를 결정하는 차원의 내용과 수를 변화 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차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W-NOMINATE만으로 밝혀낼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차원을 해석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발언을 함께 분석하였다. 의원들은 호명투표가 실시되기 전, 토론을 통해 각자의 입장 또는 정당의 입장을 표명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회의록에 나타난 의원들의 발언은 의원들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분석 자료가 된다.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투표 기록만을 이용하여 의원들의 정책 입장을 분석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명 투표 이전에 진행되었던 토론에서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검토함으로써, 의원들의 입장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회의록 자료와 라소 추정방식을 활용한 투표 차원의 검토

본 연구에서는 의원들의 호명투표에 해당하는 발언만을 대상으로 하여 회의록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회의록 자료의 시기와 의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호명 투표와 동일하다.⁴⁾ 회의록을 분석하기 용이한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 조사, 전치사, 특수문자, 숫자와 같은 무의미한 텍스트를 제거하였다. 또한, 단어의 어근만 남기고 어미를 제거하였다. 따라서 “enhance,” “enhances,” “enhanced”는 “enhanc”라는

4) 유럽의회 회의록은 Vote Watch Europe(<http://www.votewatch.eu/>) 사이트에서 자동화 방식을 이용하여 스크래핑 하였다.

공통된 어근을 가지게 되고, 같은 단어로 취급된다. 어미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위 예시의 세 단어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어로 취급이 되어 분석 결과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미를 제거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한 명의 의원 i 이 한 단어 $j \in \{1, \dots, p\}$ 를 몇 번 언급했는지에 대한 정보 w_{ij} 를 포함한 의원-단어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기별로 최소 2번 이상 언급된 단어만을 포함하고, 1번만 등장한 단어의 경우 제거하였다.

W-NOMINATE 분석을 통해 특정 의원들의 유클리드 공간 상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한 투표 행태 또는 정책선호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 선호도를 결정하는 차원을 W-NOMINATE 분석 결과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NOMINATE 분석으로 얻은 첫 번째 차원과 두 번째 차원의 점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의원들의 발언을 독립변수로 하여 의원들이 사용한 모든 단어가 의원들의 W-NOMINATE 점수를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력이 높은 단어를 걸러내기 위해 라소(LASSO: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추정 방식을 이용하였다. 라소 추정은 관측사례 수보다 변수의 개수가 많은 고차원 자료에서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방법이다(Tibshirani 1996; Friedman, Hastie, and Tibshirani 2010).

$$\min_{\beta_0, \beta \in R} \left[(y_i - \beta_0 - w_i^T \beta)^2 + \lambda \sum_{j=1}^p |\beta_j| \right] \quad \text{식(1)}$$

식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독립변수 계수의 합에 제약(constraint)을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평균제곱오차(mean-squared error)를 최소화하는 람다 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10등분으로 나누어 교차타당도(cross validation)를 실행하였다. 이 과정을 시기별 그리고 차원별로 실행한 결과, 의원들의 W-NOMINATE 점수를 비교적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선별할 수 있었다.⁵⁾

5) 시기별, 차원별로 총 단어 수와 선별된 변수의 개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서술되어 있다.

3. Esteban-Ray 계산식과 모듈식을 이용한 양극화 및 연대 정도 측정

마지막으로, W-NOMINATE에서 구한 1차원과 2차원의 점수(score)를 토대로 EP 내 양극화 정도 및 각 진영의 연대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ENF 결성과 브렉시트는 유럽의회 내 세력 구도(양극화 및 연대)의 변화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EP 내 세력 구도로는 좌우이념 혹은 유럽 통합에 대한 태도를 둘러싼 대립을 꼽을 수 있다. 우익, 반유럽연합 진영은 ENF 결성과 브렉시트에 힘입어 그 연대의 정도가 더 강화되는 한편, 좌익과 우익 혹은 친유럽연합과 반유럽연합 진영 간의 양극화 정도는 심해졌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양극화 정도를 하나의 값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Esteban-Ray 계산법과 모듈식을 이용하고자 한다.

만약 어느 한 진영의 연대 정도를 단순히 그 진영을 구성하는 교섭단체별 W-NOMINATE 점수 평균간 거리로 측정한다면, 어느 한 교섭단체 내에서 점수의 편차가 심하거나, 교섭단체 간 의석수의 격차가 클 경우 왜곡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반면 Esteban-Ray의 양극화 계산법은 정당 간 평균의 거리, 정당별 연대(cohesion)의 정도, 그리고 정당의 크기 차이를 모두 고려하여 정당 간 격차를 계산한다(Esteban and Ray 1994). 즉 정당 간 평균의 거리가 클수록, 정당 내 동질성이 클수록, 그리고 정당 간 의석수의 차이가 작을수록 양극화 정도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 계산법을 통해 같은 진영 내의 교섭단체들 간 양극화 정도를 측정한다면, 그 값이 클수록 연대의 정도가 약하고, 그 값이 작을수록 연대의 정도가 강하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Esteban-Ray의 구체적인 식은 다음과 같다.

$$Esteban-Ray = \sum_{j=1}^p \sum_{i=1}^p N_i^2 N_j \left| \max\left(|\mu_i - \mu_j| - \frac{\rho_i + \rho_j}{4}, 0\right) \right| \quad \text{식(2)}$$

식 (2)에서 μ_i 는 i 정당의 평균 이념(party mean ideology)이며, ρ_i 는 i 정당 소속 의원의 최대 이념 지표와 최소 이념 지표의 차이고, N_i 는 i 정당의 의석수, P 는 전체 정당의 수이다(Rehm and Reilly 2010; Sohn and Fowler).

그러나 식 (2)는 그 지표가 되는 이념의 차원이 1개일 때 적용 가능하다. 즉 W-NOMINATE를 통해 2개의 차원이 도출될 경우, 각 차원의 점수를 종합하여 하나의 양극화 값을 찾아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줄 방법이 바로 모듈식이다. 본래 모듈식은 네트워크 분석에서 주로 쓰이는 개념이지만, 정당을 각 점(node)의 라벨로 치환시킬 경우 양극화 지표로 활용가능하며, 나아가 그 성능이 기존의 계산법들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Sohn and Fowler). 이렇듯 모듈식을 통해 입법의원들의 연대 구도를 분석하는 시도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예: Macon *et al.* 2012; Waugh *et al.* 2009). 모듈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 \sum_{s=1}^P \left[\frac{l_s}{L} - \left(\frac{d_s}{2L} \right)^2 \right] \quad \text{식(3)}$$

식 (3)에서 P 는 모듈의 개수이며, $l_s = \sum_{i \in s} \sum_{j \in s} A_{ij}$ 는 모듈 s 안에 있는 링크 가중치의 합, $L = \sum_{i > j} A_{ij}$ 는 네트워크 내의 링크 가중치의 합, $d_s = \sum_{i \in s} \sum_{j=1}^N A_{ij}$ 는 모듈 s 에 연결된 점들의 링크 가중치의 합이다(Newman 2006; Sohn and Fowler). 한편, 총 의석수가 N , 법안의 수가 M 인 $N \times M$ 의 투표 행렬 A_{ij} 는 다음의 식을 통해 구해진다.

$$\begin{aligned} &\text{For off-diagonal elements (i.e. } i \neq j\text{),} \\ &A_{ij} = A_{Y_{ij}} + A_{N_{ij}}, \text{ with} \\ &A_{Y_{ij}} = \sum_{k=1}^M \frac{\delta_{Y_i}^k \delta_{Y_j}^k}{n_{Y_k} - 1} \text{ if } n_{Y_{k-1}} > 1 \text{ and } A_{Y_{ij}} = 0 \text{ otherwise, and} \\ &A_{N_{ij}} = \sum_{k=1}^M \frac{\delta_{N_i}^k \delta_{N_j}^k}{n_{N_k} - 1} \text{ if } n_{N_{k-1}} > 1 \text{ and } A_{N_{ij}} = 0 \text{ otherwise.} \end{aligned} \quad \text{식(4)}$$

식 (4)에서 i 의원이 k 법안에 대해 찬성했을 경우 $\delta_{Y_i}^k = 1$ 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delta_{Y_i}^k = 0$ 이다. 또한 n_{Y_k} 는 k 법안에 대한 총 찬성 득표수이다. $\delta_{Y_j}^k$ 와 n_{N_k} 도 이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III장과 IV장에서는 앞서 서술한 세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여 ENF 결성과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회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차원의 변화

그림 1 ① ENF 결성 이전 W-NOMINATE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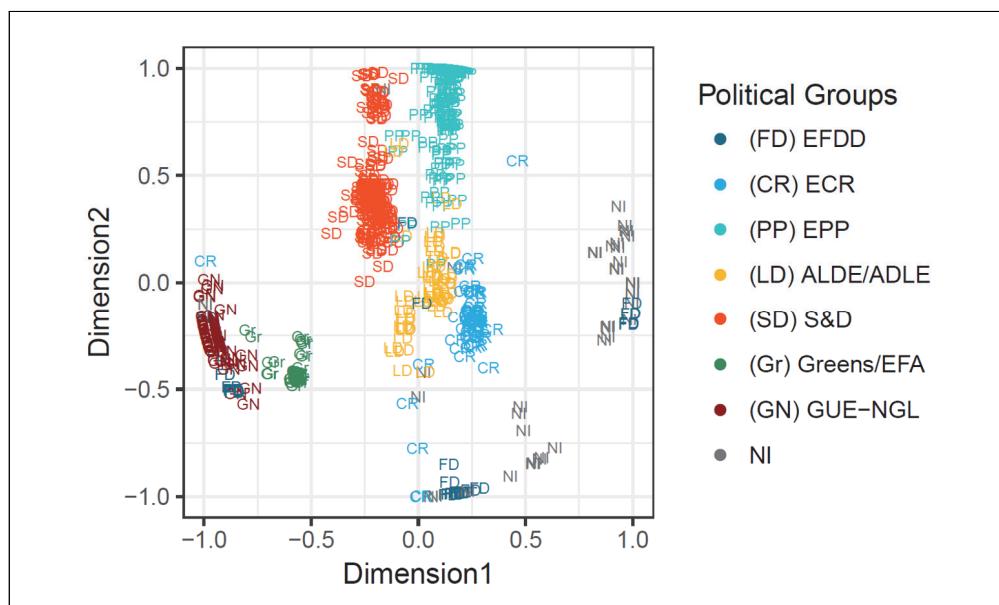


그림 2 ② ENF 결성 이후 브렉시트 이전 W-NOMINATE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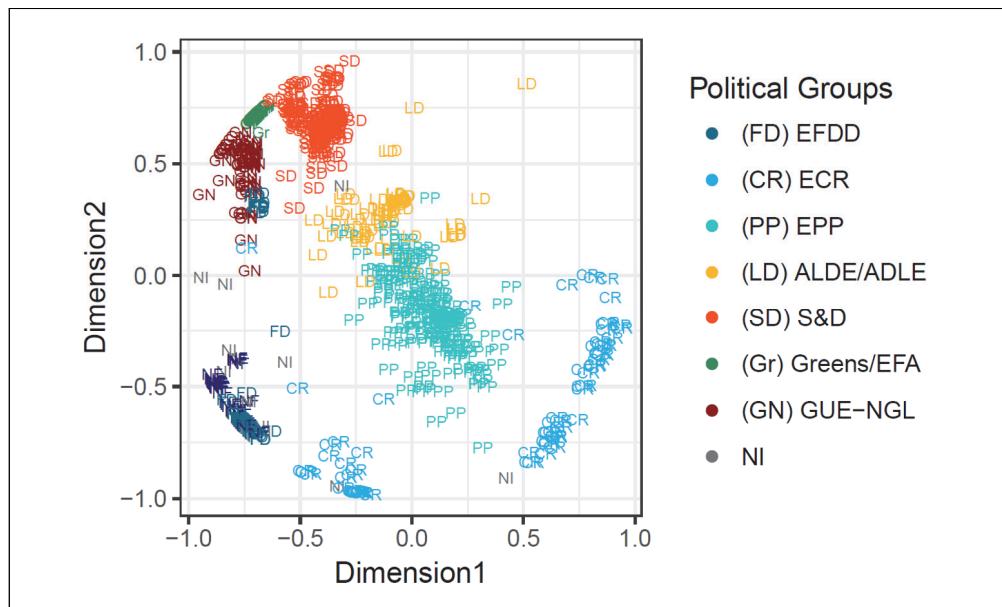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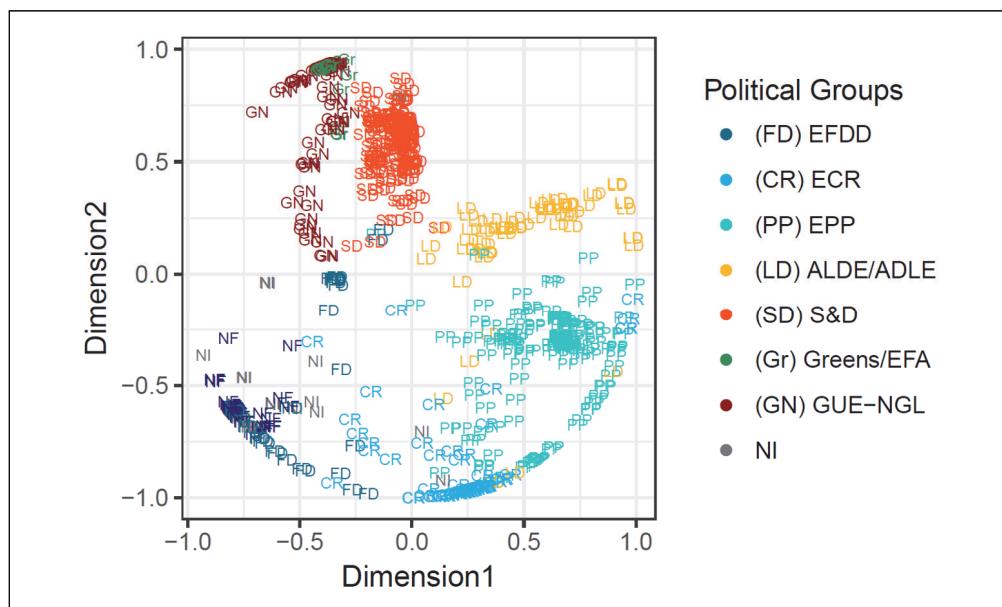


그림 3 ③ 브렉시트 이후 W-NOMINATE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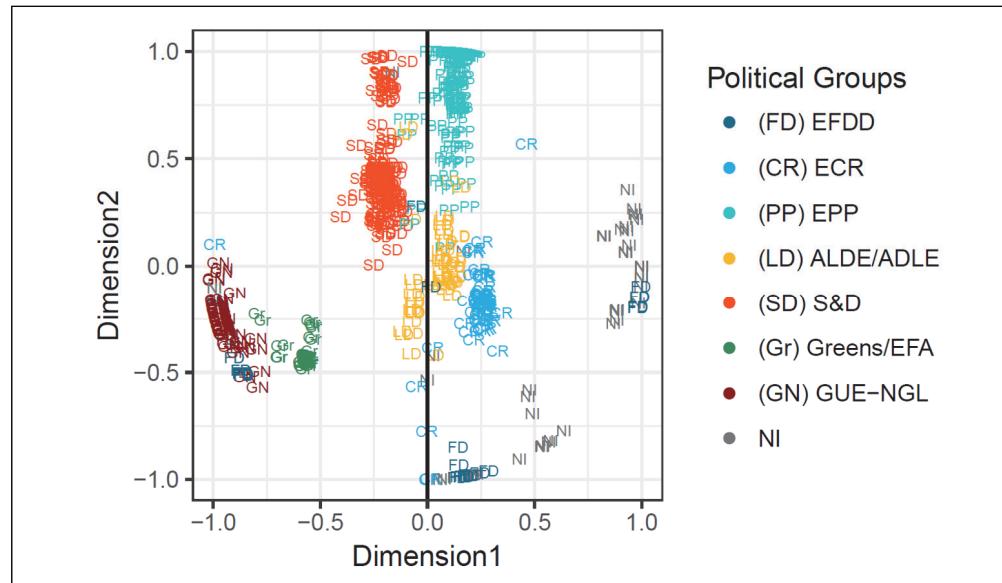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그림 3]은 차례로 ① ENF 결성 이전 ② ENF 결성 이후 브렉시트 이전 ③ 브렉시트 이후 의원들의 이상점을 W-NOMINATE를 통해 유클리드 공간에 나타낸 결과이다. 보이다시피 ①시기에서 ②시기로 넘어가면서 교섭단체별 위치가 상당 부분 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이것을 각 MEP의 ‘이상점’이 변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S&D와 ALDE를 제외한 모든 교섭단체들의 정체성이 ENF 결성 이후 변하였다는 현실과 다소 괴리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무리한 해석을 피하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각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해당하는 투표 결정의 차원들이 변했다는 해석이다. 즉 ENF 결성에 한해 [가설 1]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위해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①시기에서의 각 차원을 규명하고 ②시기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토하려 한다.

더불어 ②시기에서 ③시기로 넘어가면서 MEP의 위치보다는 분포가 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가설 1]이 부합하지 않지만, IV장에서 양극화 및 연대 정도 계산을 통해 [가설 2]를 검증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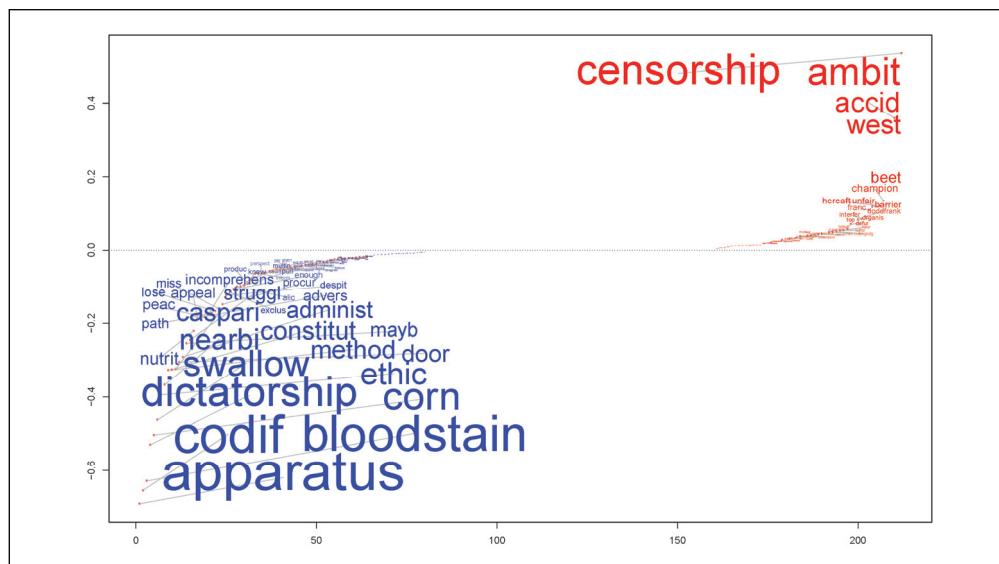
1. ENF 결성 이전의 차원: 사회주의 대 보수주의

그림 4 ① ENF 결성 이전 수직선 추가



W-NOMINATE에서 각 그래프의 축은, 자료가 되는 투표들 중 대다수가 먼저 가로축에 나타나는 지표에 의해 찬반이 나뉘고, 다음으로 많은 투표들이 세로축에 나타나는 지표에 의해 찬반이 나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4]에서 나타나듯, ①시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가로축의 영점, 즉 첫 번째 차원의 영점을 기준으로 S&D, GUE-NGL, Greens/EFA와 EPP, ECR, EFDD의 이상점이 구분된다. 전자의 교섭단체들을 묶는 이념이 사회주의(혹은 좌파), 후자의 교섭단체들을 묶는 이념이 보수주의(혹은 우파)라고 본다면, ENF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International Trade,”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Immigration” 관련 투표에 있어 MEP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투표를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⁶⁾ 이러한 해석은 라소 추정 결과로 뒷받침된다.

그림 5 ①시기 첫 번째 차원 라소 추정 결과



[그림 5]를 통해 ①시기에서 첫 번째 차원의 W-NOMINATE 점수가 낮은 MEP와 높은 MEP의 발언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점수가 낮은 MEP의 발언에 해당하는 좌측 하단을 보면, ‘apparatus,’ ‘dictatorship,’ ‘swallow’

6) Greens/EFA는 녹색정치, 소수정치를 지향하지만, 좌우 이념에 있어서는 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분류하였다.

등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단어들이 쓰인 맥락을 일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n exchange for financial aid the European Union will impose the liberalization of the economy, will dismantle the productive *apparatus* of that country, which can not compete with the big European companies,” “…this phone is *bloodstained*, this computer is covered with blood, all the technology that we use is stained with blood and minerals, because we use the electronics of which components are mined in war countries,” “(W)e will strive to break this monetary *dictatorship*,” “…the deadlock in the european project, blocked by interest lobbies and parties of all the member states which over the years have *swallowed* a lot of money without creating value.”⁷⁾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돋는다는 명목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우크라이나 자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EU를 비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자기기의 부품이 되는 자원이 비인도적인 노동환경에서 생산됨을 비판한 것이며, 세 번째는 EU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강행으로 인해 각국은 노동권 보호나 재분배정책에서 자율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고, 네 번째는 현재 EU에서 이루어지는 로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재정을 보다 투명성 있게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맥락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맹목적인 시장 팽창을 경계하고 노동 권리 등을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점수가 높은 MEP의 발언에 해당하는 우측 상단의 단어들을 보면, ‘censorship,’ ‘ambit(ion)’ 등의 단어를 살펴볼 수 있다. 해당 단어들이 쓰인 실제 맥락을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et us keep our internet free from *censorship*,” “I agree with the change in the line of the economic and social policy that makes the european commission, but we need to be more *ambitious* and more just.”⁸⁾ 첫 번째는 “Digital single market”에 대한 안전 중 겸열로부터의 자유를 피력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 및 사회정책에 있어 더 큰 포부를 가져야 함을 역설하는 맥락이었다. 이를 종합해서 보면, 첫 번째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우측에 가까울수록 자유와 경제적 이익 등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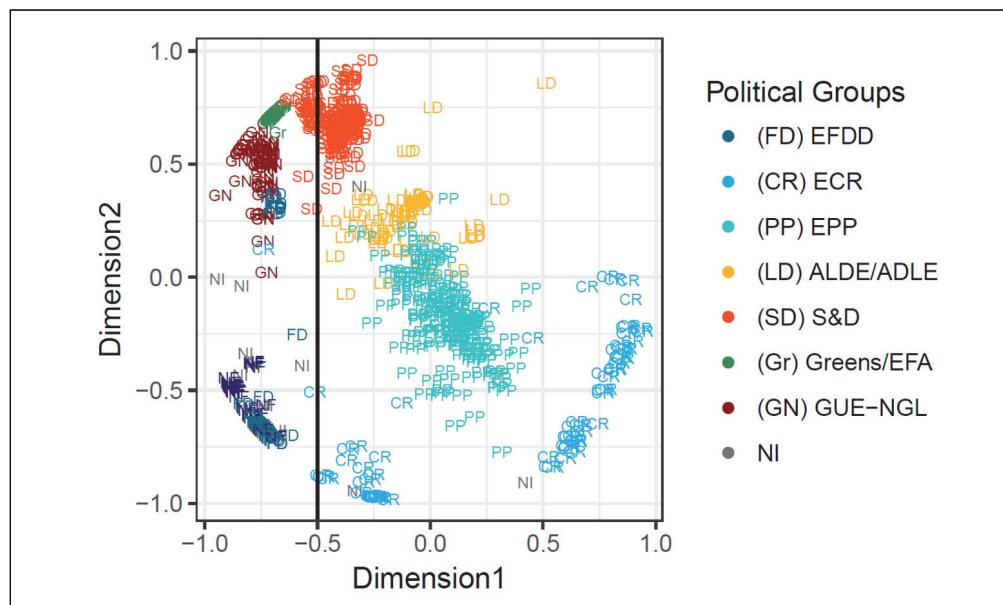
7) 자료출처는 EP의 CRE 21/10/2014 - 18, CRE 19/05/2015 - 3, CRE 11/03/2015 - 7, CRE 28/04/2015 - 16 회의록.

8) 자료출처는 EP의 CRE 26/11/2014 - 20, CRE 11/03/2015 - 7 회의록.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시기에서는 MEP가 우선 자신이 사회주의 성향인지, 보수주의 성향인지에 따라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첫 번째 차원 다음으로 MEP의 투표를 가르는 것은 두 번째 차원, 즉 그래프 상의 세로축이다. W-NOMINATE 결과만을 두고 본다면, 두 번째 차원의 점수가 높은 상단에는 S&D와 EPP가 하단에는 Greens/EFA, ECR, EFDD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친유럽연합 대 반유럽연합의 구도가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차원과는 달리 라소 추정 방식으로 뚜렷한 차원의 의미를 규명하기 어려웠다.⁹⁾ 그 이유는 ①시기에서는 두 번째 차원이 그만큼 영향력이 약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②시기로 넘어가면서 변화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차원의 수량적 변화는 이어지는 2장(나)에서 보다 깊이 다루고자 한다.

2. ENF 결성 이후 브렉시트 이전의 차원 변화: 급진파 대 온건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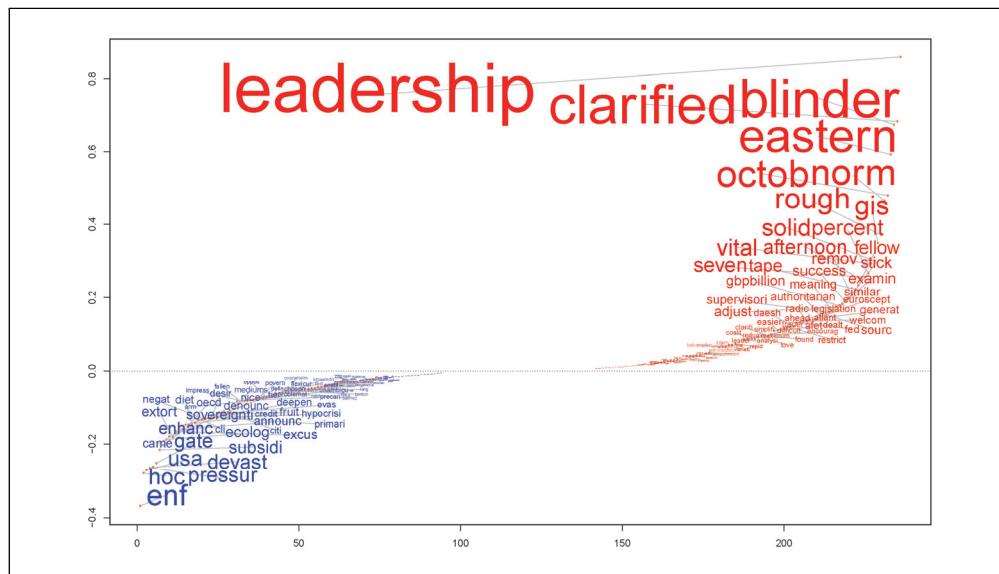
그림 6 ② ENF 결성 이후 브렉시트 이전 수직선 추가



9) ①시기 두 번째 차원에 대한 라소 추정 결과는 부록을 참고하길 바란다.

②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MEP의 투표를 결정하는 차원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① 시기에 존재하던 사회주의 대 보수주의의 차원은 이제 두 번째 차원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즉 [그림 6]의 세로축 영점을 기준으로 상단에는 사회주의 계열의 교섭단체들이 하단에는 보수주의 계열의 교섭단체들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까닭은, ENF가 결성된 이후로 대부분의 투표는 좌우 양극단에 있어 비교적 급진적인 이념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비교적 온건한 이념을 지지하는지에 따라 나뉘게 되기 때문이다. 즉 그래프의 가로축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가장 진보적인 색채를 띠는 GUE-NGL, Greens/EFA와 가장 보수적인 ENF, EFDD와 한 편을 이루고, 우측에는 보다 온건한 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교섭단체들이 한 편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양극단에 있어 도저히 뜻을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급진적인 교섭단체들이 한 편처럼 보인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이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유사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는지 라소 추정 방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7 ENF 결성 이후 브렉시트 이전 W-NOMINATE 결과



[그림 7]을 보면 ②시기에서 첫 번째 차원의 점수가 낮았던 좌측 하단 MEP 발언에서 는 ‘USA,’ ‘pressur(e),’ ‘subsidi(es)’라는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들이 쓰인 맥락으로 다음의 예시들을 들 수 있다. “And take advantage of us and the millions of wordings from citizens in the EU and the *USA!*!” “Already we feel the *pressure* of TTIP in our legislative work,” “…culture *subsidies* seal must not be attacked by the TTIP.”¹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국과의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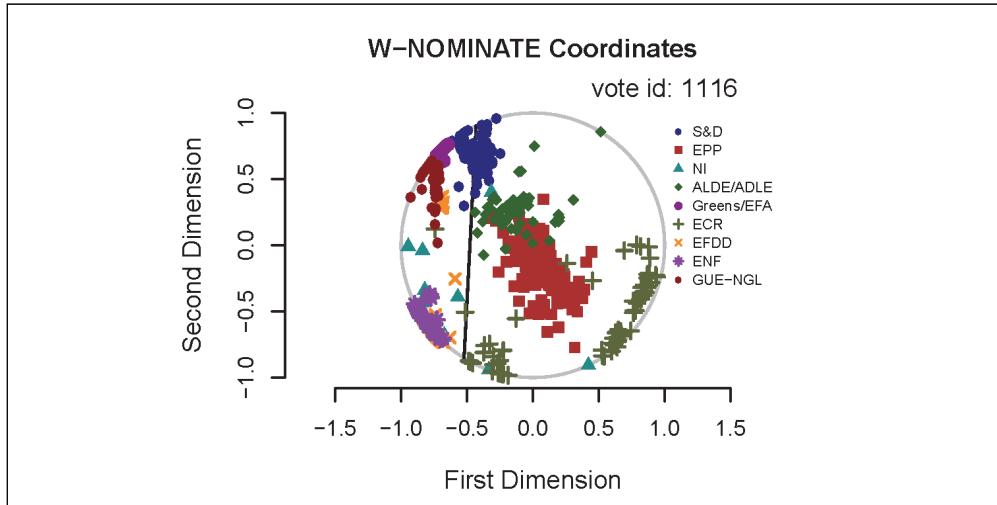
반면, 우측 상단의 MEP 발언에서는 ‘leadership,’ ‘blinder,’ ‘eastern’ 등의 단어 를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쓰인 일부 맥락은 다음과 같다. “It was important to strike the right balance between protecting the rights of consumers and those of the tourism industry. we have succeeded in my opinion, due to the good *leadership* of our rapporteur,” “We have the euro crisis, the refugee crisis, the security crisis, brexit, grexit and last week the referendum in the netherlands. I would also like to say that it is the time to walk in europe; more europe; to see a solution to all this around with *binders*” “Why are there fees on global income for supermarkets in *eastern* europe which only hit foreign companies? These are europeans blocking other europeans.”¹¹⁾ 이 모든 맥락의 공통점은, 유럽 권역 내 경제적 교류를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GEU-NGL, Greens/EFA와 ENF, EFDD가 첫 번째 차원 에서 유사한 투표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이들 모두 ‘EU를 통한 시장개방’에 반대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 S&D, EPP, ALDE, ECR 등 보다 온건한 세력들은 그러한 시장개방에 찬성한다. 이러한 해석은 자유무역 관련 투표들에서 MEP 간 찬반이 나뉘 는 경계선(cutting line)을 검토한 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었다.

10) EP의 CRE 07/07/2015 – 4 회의록.

11) EP의 CRE 26/10/2015 – 13, CRE 11/04/2016 – 19, CRE 25/05/2016 – 23 회의록.

그림 8 Negotiations for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 최종 투표 경계선(cutline)



[그림 8]은 그와 같은 검증의 한 예시이다. 해당 그래프는 ENF 결성 이후 이루어진 “Negotiations for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의 최종투표(final vote)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찬반이 갈리는지를 보여준 것이다.¹²⁾ 즉 해당 투표에서 그래프 중앙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왼쪽의 GUE-NGL, Greens/EFA, ENF, EFDD는 반대표를 던지었고, 나머지 S&D, EPP, ALDE, ECR은 찬성표를 던지었다. 이와 같은 투표행태는 동일한 안건과 관련된 여러 투표들에서 일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GUE-NGL과 Greens/EFA의 경우, 좌파 정당의 특성 상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방을 경계하고, 인권이나 노동권 보장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국가와의 무역을 반대한다. 한편 ENF나 EFDD의 경우 앞의 좌파 교섭 단체들과는 조금 다른 이유로, 각국의 이익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EU 주도의’ 자유무역에 반대한다. 따라서 ENF 결성은 MEP의 투표에서 무역과 이민 문제에 경직된 반응을 보이는 새로운 주자의 참여를 의미했고, 이것이 가장 주요한 투표 결정 차원을 급진파 대 온건파의 입장으로 나눈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ENF 결성이 급진적 좌파와 급진적 우파가 공통의 목적 아래

12) 해당 투표는 2015년 8월 7일 실시되었다.

결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난민 정책과 같이 규범적 가치가 개입되는 사안에서 급진적 우파와 급진적 좌파는 정반대의 투표행태를 보인다. 둘째, ENF가 결성한 이후에도 사회주의 대 보수주의의 대결이 두 번째 차원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어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규범적 가치 판단에서의 대립

그림 9 투표 예시1 경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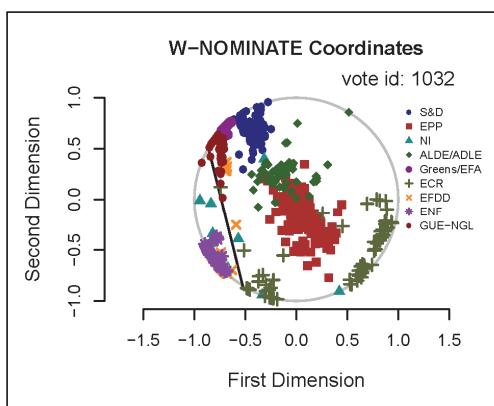


그림 10 투표 예시2 경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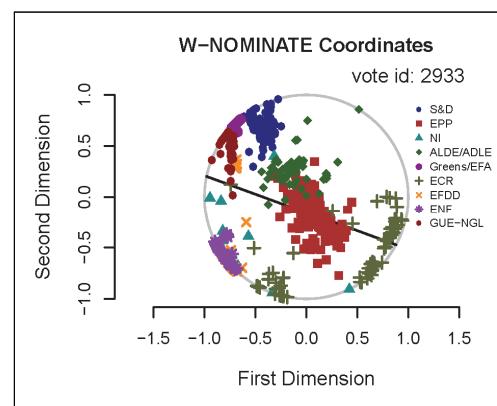


그림 11 투표 예시3 경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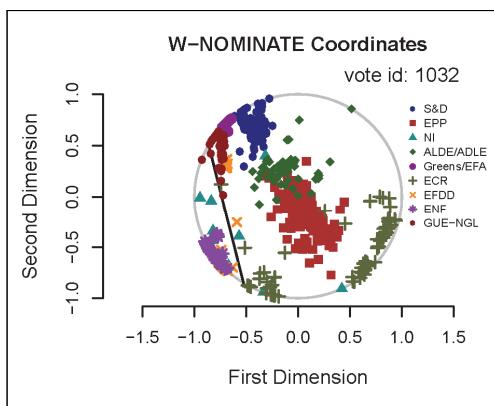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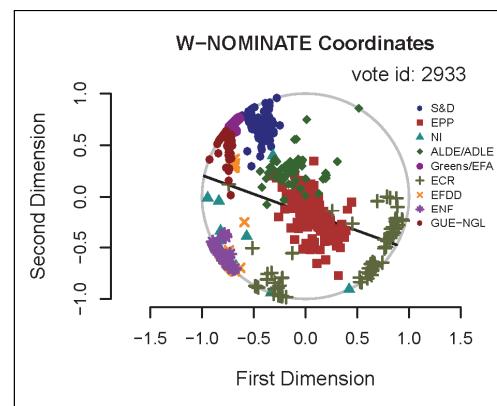


그림 12 투표 예시4 경계선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는 각각 “Draft amending budget No 5/2015 - Responding to migratory pressures,” “Mobilisation of the Flexibility Instrument for immediate budgetary measures under the European Agenda on Migration,” “Trade in certain goods which could be used for capital punishment, torture or other treatment or punishment,” “The situation in the Mediterranean and the need for a holistic EU approach to migration” 안건의 최종투표들을 바탕으로 찬반이 나뉘는 경계선을 그린 그래프이다.¹³⁾ 해당 안건들은 모두 최근 난민유입을 고려한 이민정책과 고문에 사용될 위협이 있는 물품의 무역 등 규범적 가치 판단이 개입될 만한 사항들이다. 눈에 띠는 것은, 해당 안건들에 있어 급진적인 우파 세력, 특히 ENF의 독단적인 투표행태이다. 이러한 ENF의 독단적인 투표행태는 다른 난민 관련 투표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NF와 같은 극우 세력은 민족적 위협감에 기반하여 성장한 정당들이기에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규범적 가치 판단에 있어 급진적인 우파와 급진적인 좌파 사이에 이상점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민 정책이 유럽 의회 내 논란의 대상이자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범적 차원의 간극은 급진적 우파와 좌파 간 결탁이 성립되기 힘들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두 번째 차원의 유효성

[그림 13]은 세 시기에 걸쳐 W-NOMINATE상 투표의 경계선 각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며, [그림 14]는 투표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차원이 몇 개인지 보여주는 그래프(Scree plot)이다. 가장 위에 위치한 그래프가 ①시기, 그 다음 중간에 위치한 그래프가 ②시기, 그리고 마지막에 위치한 그래프가 ③시기에 해당한다. 우선, [그림 13]을 보면 시기가 지날수록 90° 근방 경계선의 수에 비해 180° 근방 경계선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W-NOMINATE 그래프에서

13) 해당 투표들은 차례로 2015년 7월 7일, 2015년 10월 14일, 2015년 10월 27일, 2016년 4월 12일 실시되었다. “Trade in certain goods which could be used for capital punishment, torture or other treatment or punishment”의 경우 최종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투표로 대체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가로축 영점을 기준으로 나뉘는 투표들에 비해, 세로축 영점을 기준으로 나뉘는 투표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즉 MEP의 투표를 결정하는 차원의 수가 보다 명확하게 두 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상에서 ‘2’에 해당하는 요인의 고유값(eigenvalue)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종속변수인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보다 명확히 두 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①시기에서는 두 번째 차원의 존재감이 미비하였지만, ENF가 결성되고 ②시기에 들어서면서 두 번째 차원 또한 유효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ENF 결성이 급진파 대 온건파라는 새로운 차원을 등장시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때 영향력이 증대된 두 번째 차원은 기존의 사회주의 대 보수주의라는 차원일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림 13 투표 경계선 각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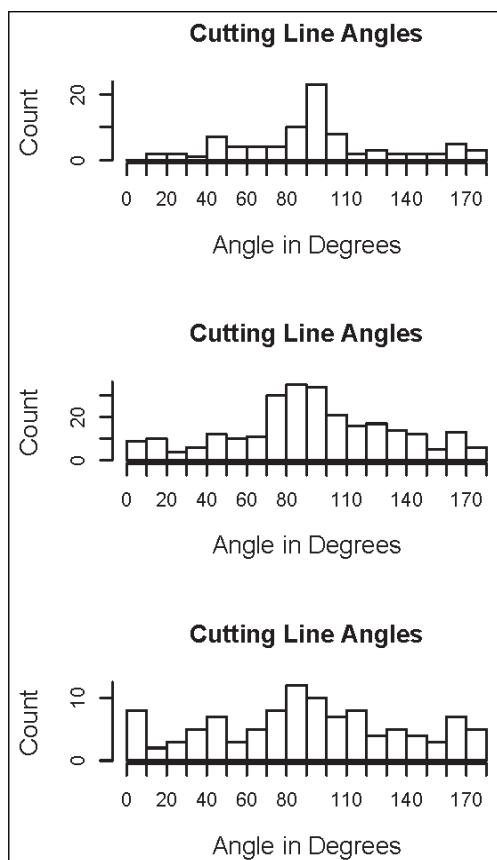


그림 14 W-NOMINATE Scree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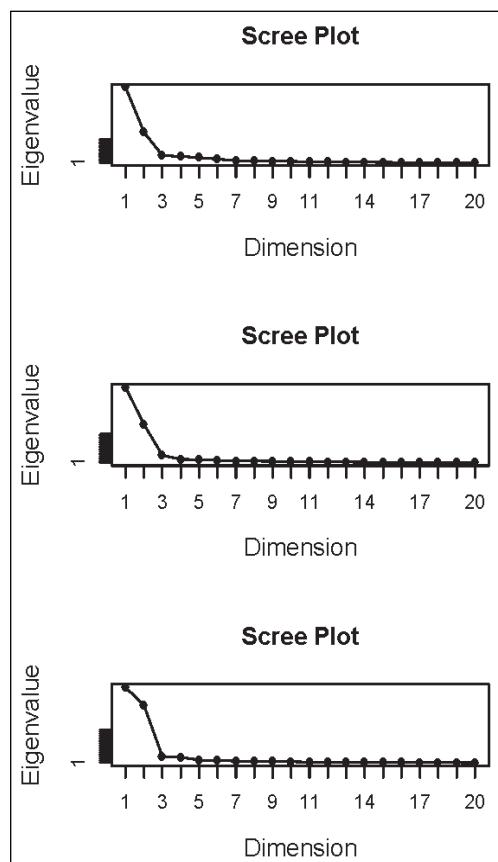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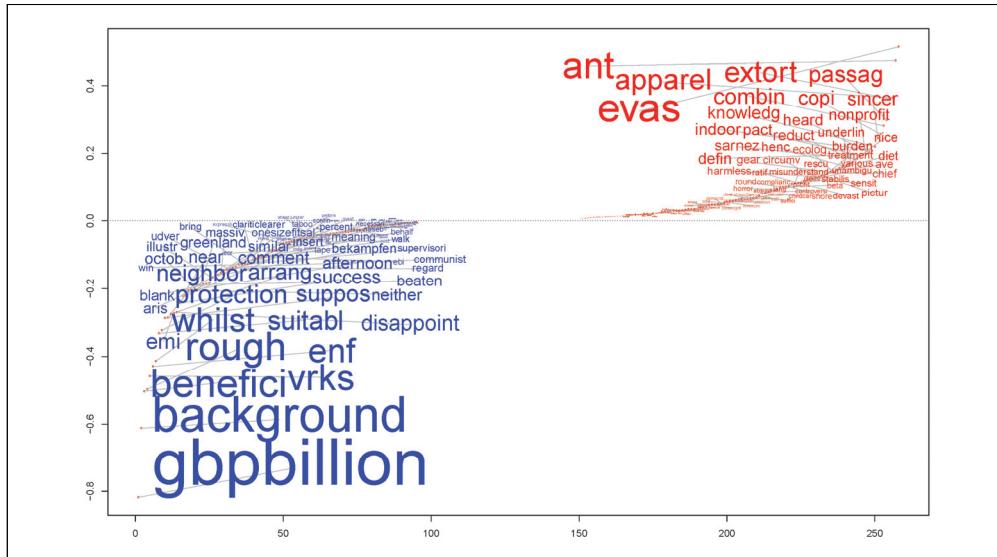


그림 15 ②시기 두 번째 차원 라소 추정 결과



[그림 15]를 보면 ②시기에서 두 번째 차원의 점수가 높았던 우측 상단의 MEP 발언에서는 ‘*evas(ion)*,’ ‘*extort(ion)*’ 등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쓰인 일부 맵락은 다음과 같다. “…the fight against tax fraud, tax *evasion*, aggressive tax planning and money laundering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we want to prevent tax *evasion* and social dumping…,” “…the only way to stop sexual violence, *extortion*, exploitation, rape is a change of policy in relation to refugees,” “It is a naked *extortion*. Please take into account the weak state of the economy in Bosnia and Herzegovina.”¹⁴⁾ 즉 세금 인상을 주장하거나 탈세를 비판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피난민의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등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차원의 점수가 낮았던 좌측 하단의 MEP 발언에서 ‘*gbpbillion*’이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해당 단어가 쓰인 맵락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The trade in services agreement has the potential to add *gbp20billion* to the

14) EP의 CRE 01/02/2016 – 10, CRE 29/04/2015 – 22 회의록.

annual gdp of the EU, and with services accounting for 70% of our EU economy,” “TTIP is estimated to be worth *gbp100billion* to the european union.”¹⁵⁾ 이는 모두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내용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②시기의 두 번째 차원은 ①시기의 첫 번째 차원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대 보수주의의 차원임을 알 수 있다. ENF 결성이 급진파 대 온건파라는 새로운 차원을 등장시켰고, 기존에 투표를 결정하는 첫 번째 차원으로 존재하던 사회주의 대 보수주의가 두 번째 차원으로 밀려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번째 차원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급진적인 좌파와 급진적인 우파 사이에 아직 이상점의 차이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NF 결성이 표면적으로는 급진적인 좌파와 급진적인 우파가 EU 주도의 무역과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결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전자가 노동권 보호를, 후자가 민족의 영광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목적하에 같은 투표를 선택한 결과일 뿐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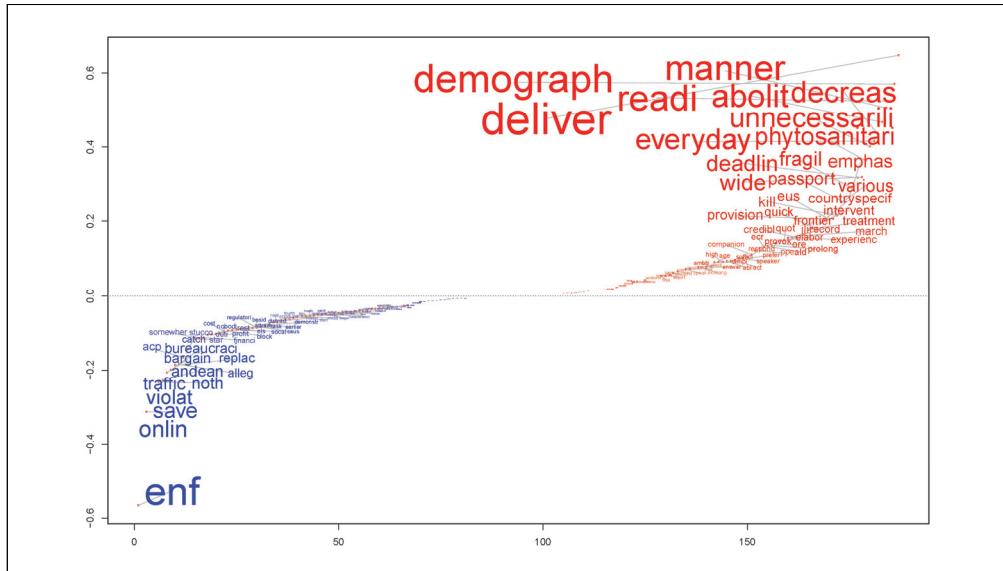
하지만 한편으로는 ENF 결성이 기존의 방식으로 통합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를 투표의 주요한 결정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ENF를 견제하는 세력이 안심하기에는 이론 듯 보인다. GUE-NGL이나 Greens/EFA가 결과적으로는 ENF와 유사하게 그러한 경제정책에 반대한다고 해도, ENF가 목표로 하는 민족국가로의 회귀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이 캐스팅 보터가 되어 EP의 분열에 성공하기를 원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듯이, 좌파 세력은 ENF 결성 이후 더욱 더 연대가 견고해졌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양극화 및 연대의 변화를 다루는 IV장에서 더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3. 브렉시트 이후의 차원 유지

한편, W-NOMINATE 분석 결과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일어난 ③시기에는 ②시기와 큰 단절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브렉시트에 있어서는 투표 결정 차원의 변화를 가정한 [가설1]이 부합하지 않은 것이다. 다음은 ③시기의 차원을 검토한 결과이다.

15) EP의 CRE 01/02/2016 – 10, CRE 07/07/2015 – 4 회의록.

그림 16 ③시기 첫 번째 차원 라소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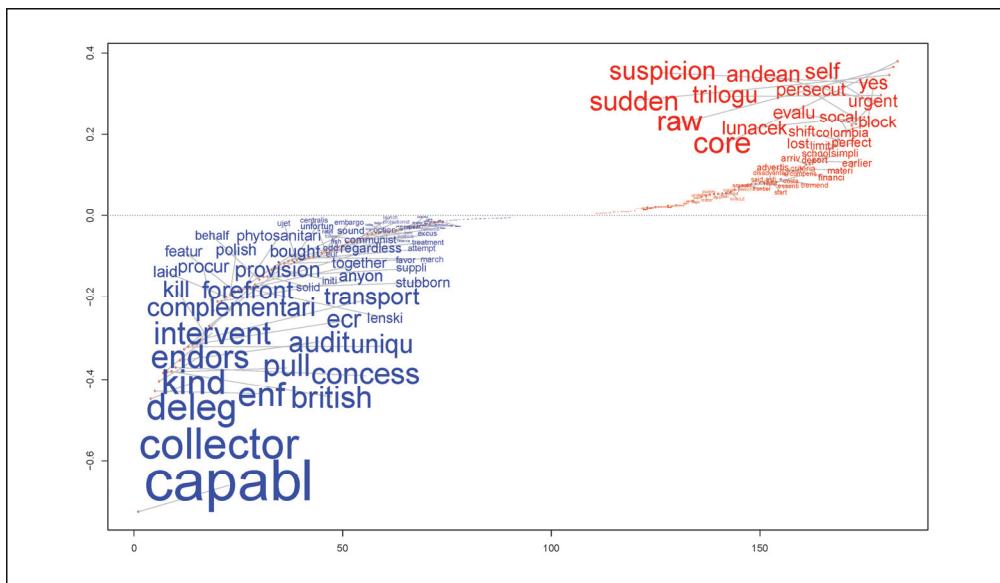


③시기 첫 번째 차원의 W-NOMINATE 점수를 대입하여 라소 추정을 한 결과는 [그림 16]과 같다. 이를 해석하기 위한 몇 가지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낮은 점수를 받은 MEP가 사용한 단어 중 좌측 하단에 보이는 ‘*violat(ion)*’의 경우, “What is international trade? Too often, following the debates in this parliament, I got the impression that it is a goal itself, an achievement. But colleagues, no! The trade is not a goal, but only a tool to achieve other purposes…it was produced with forced child labor or *violating* human rights”라며 인권을 침해하는 노동환경에서 생산된 물건마저도 거래하는 무역에 반대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¹⁶⁾ 반면, 높은 점수를 받은 MEP가 사용한 단어 중 우측 상단에 보이는 ‘*demograph*’는 “In the long run, we could compensate *demographic* challenges facing our continent, and through recognition of existing skills, language, educational and vocational training, we would be able to match supply and demand on our labour market,” 이민자의 노동시장에 대한 통합을 찬성하는 맥락에서 쓰였다.¹⁷⁾

16) EP의 CRE 04/07/2016 – 17 회의록.

이는 앞서 ②시기의 첫 번째 차원과 같이 EU 차원의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급진파 대찬성하는 온건파의 대결구도를 보여준다.

그림 17 ③시기 두 번째 차원 라소 추정 결과



또한,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차원을 라소 추정한 결과는 [그림 17]과 같다.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높은 점수를 받은 MEP가 사용한 단어 중 ‘core’은 “for all trade agreements to require the parties to ratify and implement the eight **core** ILO standards in the future, to carry out comprehensive follow - up assessments and to actively counter negative effects on jobs and workers’ rights,” 즉 노동권 보장을 강조하는 진보적 맥락에서 쓰였다.¹⁸⁾ 한편, 낮은 점수를 받은 좌측 하단의 MEP가 사용한 단어 중 눈에 띄는 것은 ‘british’이다. 이 경우, “The united kingdom is not bound by this legislation, but even so, as long as the UK remains a member of the EU, **british** taxpayers will be

17) EP의 CRE 04/07/2016 - 14 회의록.

18) EP의 CRE 04/07/2016 – 17 회의록.

liable to help bear the financial cost. This legislation compromises the national sovereignty of participating member states, but it will not succeed in controlling the migrant crisis on Europe's borders so long as the Schengen area continues to exist”라는 예시에서 보이듯이 이민자들에 대한 통합정책에 반대하는 보수적 맥락에서 사용되었다.¹⁹⁾ 이는 앞서 ②시기의 두 번째 차원과 같이 사회주의 대 보수주의가 두 번째 차원으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만큼 큰 주목을 받았던 브렉시트가 EP의 투표 차원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영국이 이미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EU에 대해 회의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고, 브렉시트에 대한 논의 또한 오래전부터 공론화 되어 있던 문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일례로, 영국은 아일랜드, 덴마크와 함께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의 Title V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에 기초한 EU 공통의 망명 · 이주민 · 비자 · 국경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왔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75년도에 이미 EU를 탈퇴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을 정도로, 브렉시트에 대해 오래 논쟁해왔던 국가이다. 따라서 브렉시트 논의 자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과거와 단절을 일으킬 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듯하다. 다만, 브렉시트 이후에 W-NOMINATE상 MEP들의 분포가 변화하였고, 전체적으로 양극화 정도가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세력 구도의 변화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어지는 IV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IV. 양극화 및 연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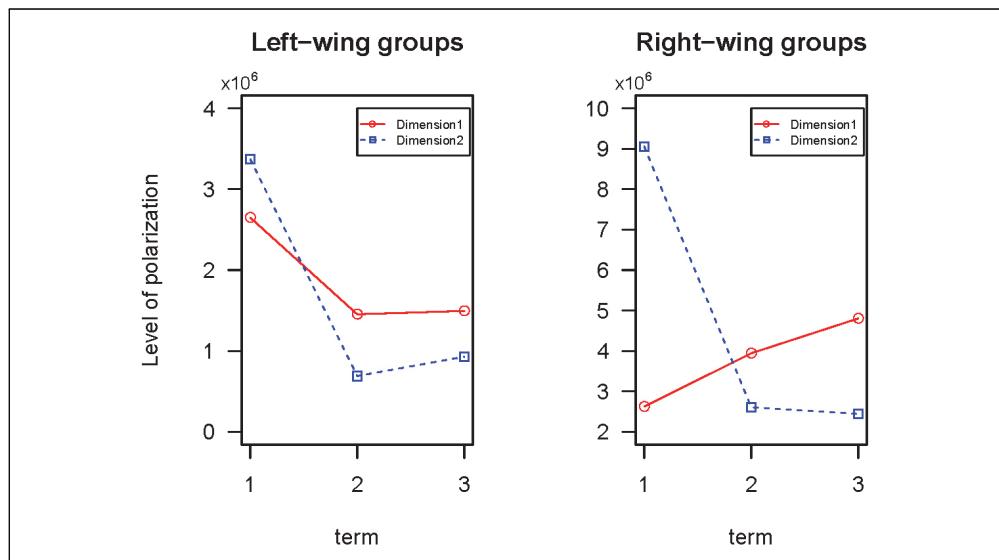
1. ENF 결성 이후 좌파 연대의 강화

ENF 결성 이후 투표의 새로운 차원이 들어서고, 브렉시트는 그러한 차원을 견고히 하였다면, 양극화 및 연대라는 세력 구도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19) EP의 CRE 05/07/2016 – 11 회의록.

Esteban-Ray 계산식과 모듈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특히 ENF가 결성된 이후로 좌파 연대가 강화되었다는 점과 브렉시트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양극화 정도가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ENF 결성과 브렉시트가 우익, 반유럽연합 진영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좌익과 우익 혹은 친유럽연합과 반유럽연합 진영 간의 양극화는 심화했을 것이라는 [가설 2]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그림 18 Esteban-Ray로 계산한 좌우 진영의 양극화 정도



먼저, Esteban-Ray 계산식을 통해 좌파(S&D, GUE-NGL, Greens/EFA)와 우파(EPP, ECR, EFDD) 진영의 양극화 정도를 계산한 결과는 [그림 18]과 같다. 왼쪽 그래프의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좌파 교섭단체들은 ①시기에서 ②시기로 넘어가며 첫 번째 차원과 두 번째 차원 모두에서 그 양극화 정도가 감소함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ENF 결성 이후 좌파 교섭단체간의 연대가 견고해진 것이다. 이를 다시 한 번 검증하기 위해, 2차원 이상의 투표에 대해서도 그 양극화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듈식을 적용해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²⁰⁾ [표 2]에서 ‘좌파(진영) 내’ 양극화 정도를 시기별로 살펴보

20) 앞서 II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steban-Ray 계산식과 모듈식은 그 계산 방법이 다를 뿐더러, 전자의 경우 일차원에서의 변화만을 관측할 수 있지만 후자는 고차원에서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다는

면, ①시기에는 0.082, ②시기에는 0.077, ③시기에는 0.075로 일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 줄어드는 폭은 ENF 결성 이후의 변화폭이 커졌다.

표 2 모듈식으로 계산한 양극화 정도

시기	좌/우 간	친/반유럽 간	좌파 내	우파 내	친유럽 내	반유럽 내	교섭단체 간
①	0.357	0.466	0.082	0.101	0.163	0.016	0.187
②	0.360	0.462	0.077	0.102	0.161	0.018	0.183
③	0.345	0.448	0.075	0.097	0.153	0.017	0.178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차원의 변화를 분석하였을 때, ENF 결성이 EU가 기존의 방식으로 통합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를 투표의 주요한 결정 차원으로 등장시켰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GUE-NGL이나 Greens/EFA와 같은 좌파 교섭단체들도 통상 그러한 시장개방에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그들이 반길만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ENF와 EFDD가 그러한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맥락은 좌파들이 반대하는 맥락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할 필요가 있다. 좌파 교섭단체들의 경우 EU가 펼치는 통합정책에 있어서는 간혹 회의적 일지 몰라도, 유럽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한 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약한 유럽 회의주의 성향을 띤다고 평가되는 GUE-NGL조차, 그들의 표어를 ‘Another Europe is possible’로 정하였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말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담기도 하였다.

Confederalism for us means respecting and preserving the diversity of identities and opinions of our members. What unites us is the vision of a socially equitable, peaceful and sustainabl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based on international solidarity. Europe can make a big contribution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many people - this requires a certain political will, of course.²¹⁾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두 계산식이 서로 반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연구방법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결과만을 신뢰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21) GUE-NGL 공식사이트(<http://www.guengl.eu/group/about>, 검색일: 2017. 3. 30).

즉 좌파 교섭단체들은 ENF와 같은 극우 교섭단체가 주장하는 민족국가로의 회귀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바이다. 따라서 아무리 자유무역 등에 있어 같은 쪽의 투표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들과 다른 이상점을 취하는 ENF가 입지를 강화시키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ENF가 결성된 이후 좌파는 극우 세력의 확장을 보다 경계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연대가 더 강해졌으리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극우 교섭단체의 등장이 좌파 교섭단체의 연대라는 반작용을 낳은 것이다.

2. 브렉시트 이후 양극화의 감소

모듈식을 따른 [표 2]에 따르면, 브렉시트 표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모든 기준에 있어 양극화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좌파 세력과 우파 세력이 각각 결집하면 그만큼 좌파와 우파 간의 양극화는 심해지고, 마찬가지로 친유럽연합 진영과 반유럽연합 진영이 각각 결집하면 그만큼 두 진영 간의 양극화는 심해지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각 진영 내부의 양극화이던, 진영 간 양극화이던 그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좌파가 결집한 맥락과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약한 유럽회의주의의 GUE-NGL을 비롯하여 Greens/EFA, S&D, ALDE, EPP는 모두 유럽지역의 통합 자체에 있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교섭단체들이다. 이들로서는 영국의 탈퇴가 전 유럽을 걸쳐 극우세력이 득세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유럽공동체라는 개념에 대한 시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민정책과 EU 주도의 시장 통합, 자유무역 정책이라는 민감한 사항들에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유지하는 것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브렉시트 자체가 공론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투표의 차원을 바꿀 만큼 충격을 일으키진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려가 MEP에게 브렉시트 이전에 비해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성을 더 키워주었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양극화 정도도 줄었으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브렉시트도 ENF 결성과 마찬가지로 EP가 새로운 갈등보다 각성의 길로 나아가게끔 반작용을 초래한 것이다.

V. 맷음말

과연 ENF라는 극우 교섭단체의 등장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행은 EP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ENF 결성과 브렉시트의 영향을 포착해내기 위해, 제8대 EP의 ‘International Trade,’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Immigration’ 관련 투표와 회의록을 자료로 삼았고, W-NOMINATE로 투표행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EP를 다룬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화되게 라소 추정 방식을 활용하여 W-NOMINATE의 첫 번째 차원, 두 번째 차원의 점수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회의록의 단어들을 추렸고 이를 통해 투표를 결정하는 차원을 추론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표 3]에서 보이는 ‘차원의 변화’ 내용과 같다. ENF가 등장하기 이전에, MEP는 자신이 속한 이념이 사회주의인지 보수주의인지에 따라 대부분의 투표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ENF라는 극우 교섭단체가 등장하게 되며, EU가 추구하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힘을 얻게 되었고 기존의 투표 결정 차원은 급진파 대 온건파로 대체되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급진적인 우파와 급진적인 좌파가 공통의 목적 아래 결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었다. 특히 난민 정책과 같은 규범적 가치 판단이 개입하는 안건에 대해, 급진적인 우파는 좌파와는 다른 독단적인 투표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즉 급진적인 우파의 경우 민족의 영광을 되찾는다는 목표 아래 유럽공동체의 통합에 반발하여 EU 주도의 시장개방에 반대한 반면, 급진적인 좌파의 경우 노동권 보호 등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유럽공동체의 통합 그 자체가 아닌 현재 EU식의 시장개방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에 둘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상점의 차이는 기존의 사회주의 대 보수주의라는 투표 결정 차원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ENF 결성 이후 두 번째로 중요한 차원으로 밀려났을 뿐이고, 그 유효성도 시기가 지날수록 증대되었다는 점에서 뒷받침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투표의 차원은 브렉시트 이후 유지되었다.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던 브렉시트가 투표 차원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단절을 일으키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이미 오래 전부터 공론화되어 있어 완전히 새로운 충격으로 여겨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결과 요약

시기	차원의 변화	양극화 및 연대의 변화
①ENF 결성 이전	1. 사회주의 대 보수주의	-
②ENF 결성 이후	1. 급진파 대 온건파 2. 사회주의 대 보수주의	좌파 연대 강화
③브렉시트 이후	-	전체 양극화 감소
시사점	EU의 분열과 민족국가로의 회귀에 대한 견제를 낳음	

이처럼 GUE-NGL, Greens/EFA의 좌파 세력이 ENF나 EFDD와 같은 급진적인 우파와 다수의 투표에서 같은 선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목표로 하는 바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한 ENF라는 극우 교섭단체의 등장은 좌파에게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Esteban-Ray 계산식과 모듈식을 활용하여 양극화 정도를 계산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그 내용은 [표 3]의 ‘양극화 및 연대의 변화’와 같다. ENF가 결성된 이후, 좌파 세력은 극우와 유럽회의주의가 결합하여 유럽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민족국가로의 회귀를 불러올 것을 경계하였을 것이고, 이는 좌파 교섭단체들 내에서 연대가 강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그 연장선상에서, 브렉시트 이후 오랫동안 이어졌던 탈퇴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보다 큰 충돌과 갈등에 조심스러웠을 것이고, 좌우 양진영 내, 양진영 간, 그리고 전체 여덟 교섭단체 간 양극화 모두가 감소하였다.

ENF의 수장 마린 르 펜은 EP에 새로운 교섭단체로 참여하는 포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Day after day, the Europe of Brussels reveals its deadly plan: to deconstruct the nation states in order to create a new globalised order, one that threatens the security, prosperity, identity and very survival of the peoples of Europe.”²²⁾

Faced with the advocates of federalism, we are the enlightened guardians of the national spirit and defenders of the interests of the peoples of Europe.”²²⁾

이는 ‘EU의 주권 침해’에 맞선 ‘민족국가의 수호’를 염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다수의 결정에 따라 EU 탈퇴가 결의된 브렉시트를 통해 이들 극우세력은 승리 가능성 을 엿보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소 어긋난 EP의 반응 을 보여준다. 유럽회의주의와 극우의 약진은 EU가 기존 방향대로 시장통합과 무역정책, 이민정책을 추구하는 것에 적색 불을 켰지만, 그것이 바로 EU의 분열과 민족국가로 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좌파세력은 이러한 분열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더 연대하는 반작용을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MEP 전체의 양극화 정도가 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회의주의의 극우세력이 말하는 EU의 분열과 민족국가로의 회귀도 그만큼 견제를 받게 되었다. 해체와 붕괴, 강압적인 통합 사이에서 EU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선택할지, 그 새로운 역사가 기대되는 바이다.

22) ENF 공식사이트(<http://www.enfgroup-ep.eu/>, 검색일: 2017. 3. 30).

참고문헌

◀ 단행본

- Poole, Keith T. 2005. *Spatial Models of Parliamentary Vot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unio, Tapio. 1997. *The European Perspective: Transnational Party Groups in the 1989-1994 European Parliamen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 정기간행물

- 유정환. 2008. 「서유럽의 포퓰리즘 정당과 유럽통합」. 『유럽연구』, 26.1: 1-22.
- Attina, Fulvio. 1990. "The Voting Behaviour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mbers and the Problem of the Europart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8.5: 557-579.
- Brzinski, Joanne Bay. 1995. "Political Group Cohesion in the European Parliament, 1989-1994." *The State of the European Union*, 3: 135-158.
- Carrubba, Clifford J. et al. 2004. "A Second Look at Legislative Behavior in the European Parliament. Roll-Call Votes and the Party System." IHS Political Science Series No. 94: 35.
- Esteban, J. M., and D. Ray. 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819-51.
- Everson, Phil, Rick Valelly, and Jim Wiseman. 2009. "NOMINATE and American Political History: A Primer." *Hentet Fra*.
- Friedman, J., Hastie, T., & Tibshirani, R. 2010. "Regularization Paths for Generalized Linear Models via Coordinate Descent."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33(1), 1.
- Hix, Simon. 2002. "Parliamentary Behavior with Two Principals: Preferences, Parties, and Voting in the European Parlia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88-698.
- Hix, Simon, Abdul Noury, and Gérard Roland. 2005. "Power to the Parties: Cohesion and Competition in the European Parliament, 1979-2001." *British*

-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02: 209-234.
- _____. 2006. "Dimensions of Politics in the European Parlia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2: 494-520.
- _____. 2009. "Voting Patterns and Alliance Formation in the European Parliament."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64.1518: 821-831.
- Høyland, Bjørn. 2010. "Procedural and Party Effects in European Parliament Roll-call Votes." *European Union Politics*, 11.4: 597-613.
- Macon, Kevin T, Peter J Mucha, and Mason A Porter. 2012. "Community Structure in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Physica, A* 391(1): 343-61.
- Newman, M.E.J. 2006. "Modularity and Community Structure in Network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3(23): 8577-82.
- Poole, Keith, Jeffrey Lewis, James Lo, and Royce Carroll. 2011. "Scaling Roll Call Votes with w-nominate in R."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2 (14): 1-21.
- Rehm, P., and T. Reilly. 2010. "United We Stand: Constituency Homogeneity and Comparative Party Polarization." *Electoral Studies*, 29(1): 40-53.
- Sohn, Yunkyu and Flower, James H. "On the Measurement of Party Polarization." Working Paper.
- Tibshirani, R. 1996. "Regression Shrinkage and Selection via the Lasso."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Methodological)*, 267-288.
- Waugh, A., L. Pei, J. Fowler, P. Mucha, and M. Porter. 2009. "Party Polarization in Congress: A Network Science Approach."
- Werts, Han, Peer Scheepers, and Marcel Lubbers. 2012. "Euro-scepticism and Radical Right-wing Voting in Europe, 2002-2008: Social Cleavages, Socio-political Attitudes and Contextual Characteristics Determining Voting for the Radical Right." *European Union Politics*.

◀ 온라인 자료

제8대 유럽의회 본회의 호명투표 기록. <http://www.votewatch.eu/>(검색일: 2017. 3. 22).

제8대 유럽의회 본회의 회의록. www.europarl.europa.eu(검색일: 2017. 3. 22).

ALDE 공식 사이트. <http://www.alde.eu>(검색일: 2017. 3. 30).

ECR 공식사이트. <http://www.ecrsgroup.eu>(검색일: 2017. 3. 30).

EFDD 공식사이트. <http://www.efddgroup.eu>(검색일: 2017. 3. 30).

ENF 공식사이트. <http://www.enfgroup-ep.eu>(검색일: 2017. 3. 30).

EPP 공식사이트. <http://www.eppgroup.eu>(검색일: 2017. 3.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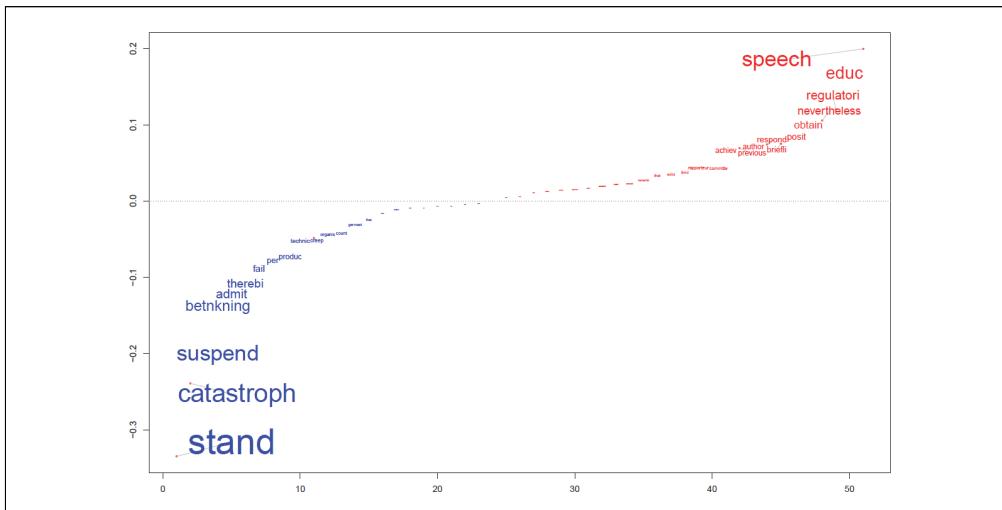
S&D 공식 사이트. <http://www.socialistsanddemocrats.eu>(검색일: 2017. 3. 30).

Greens/EFA 공식 사이트. <http://www.greens-efa.eu>(검색일: 2017. 3. 30).

GUE-NGL 공식 사이트. <http://www.guengl.eu>(검색일: 2017. 3.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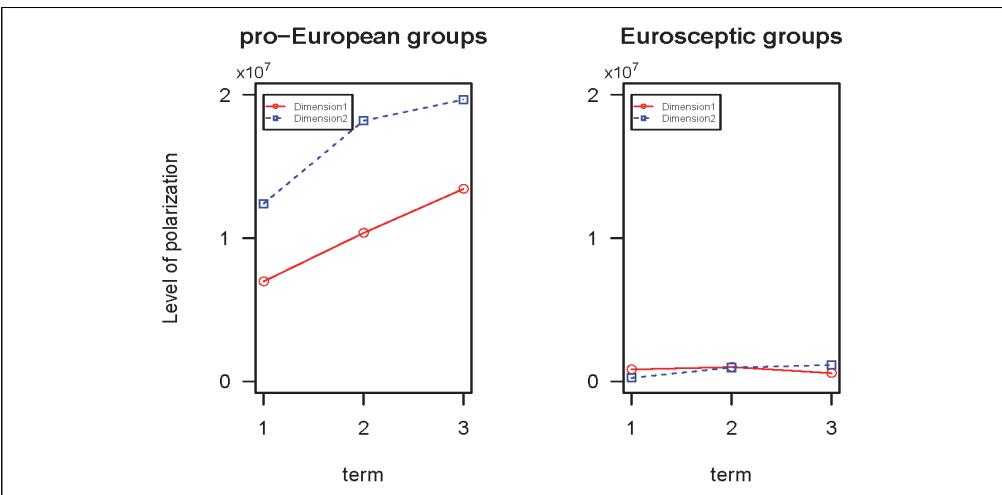
부록

그림 A1 ①시기 두 번째 차원 라소 추정 결과



주: Scree plot을 통해 검토한 결과, 해당 차원의 유효성이 비교적 약하게 나온 관계로 본문에 싣지 않았다.

그림 A2 Esteban-Ray로 계산한 친유럽연합/반유럽연합 진영의 양극화 정도



주: 친유럽연합 교섭단체는 S&D, EPP, ALDE; 반유럽연합 교섭단체는 EFDD, ECR, GUE-NGL로 구성하였다. 위의 결과가 모듈식의 결과와는 상반되게 나온 관계로, 신뢰할 수 없는 값이라고 판단하여 본문에 싣지 않았다.

식 A1 W-NOMINATE

W-NOMINATE scores are based on the spatial model of voting. Let s denote the number of policy dimensions, which are indexed by $k = 1, \dots, s$; let p denote the number of legislators $i = 1, \dots, p$; and q denote the number of roll call votes $j = 1, \dots, q$. Let x_i be the ideal point of legislator i , a vector of length s . Each roll call vote is represented by vectors of length s , z_{jy} and z_{jn} , where y and n stand for the policy outcomes associated with Yea and Nay, respectively. Legislator i 's utility for outcome y on roll call j is

$$U_{ijy} = u_{ijy} + \epsilon_{ijy} \quad (1)$$

$$u_{ijy} = \beta \exp \left[-\frac{\sum_{k=1}^s w_k^2 d_{ijyk}^2}{2} \right] \quad (2)$$

where u_{ijy} represents the deterministic part of the legislator's utility while ϵ_{ijy} represents the stochastic component. The d_{ijyk}^2 term in the exponent is the Euclidean distance between a legislator's ideal point x_i and the Yea bill location z_{jyk} ; namely,

$$d_{ijy}^2 = \sum_{k=1}^s (x_{jk} - z_{jyk})^2 \quad (3)$$

Weight w and β are estimated but set with initial values of 0.5 and 15 respectively. β can be thought of as a signal-to-noise ratio, where as β increases in value, the deterministic portion of the utility function overwhelms the stochastic portion. In multiple dimensions, β is only estimated for the first dimension and is thereafter kept constant. For dimensions 2 to s , the corresponding w_k is estimated, with the starting value of w_k set at 0.5 each time.

The stochastic element in the utility, ϵ , is assumed to follow an extreme value distribution. This allows us to express the probability that legislator i votes for outcome y on roll call j as: